

NOBLIAN

THE SHILLA

ISSUE 169 / AUGUST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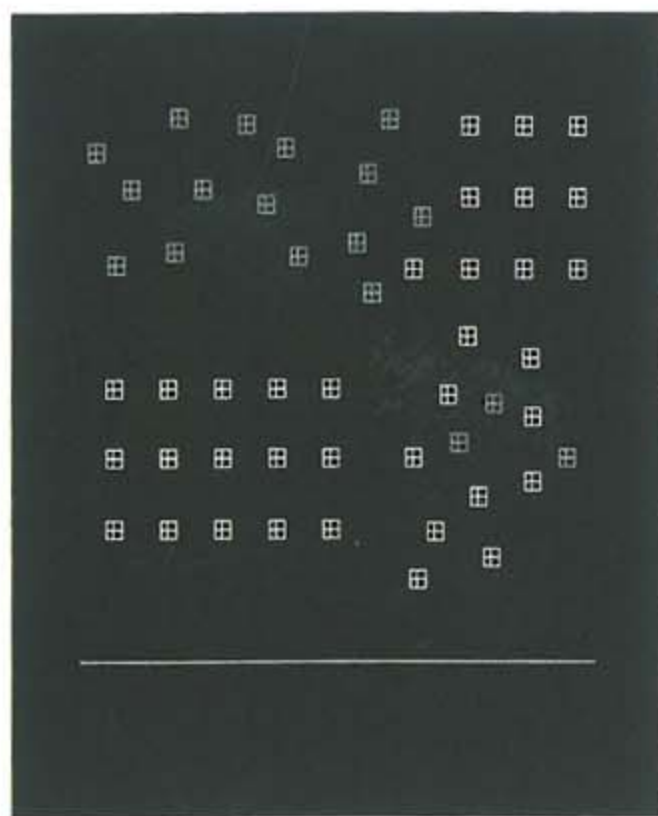


THE FLOW OF TIME

“돌이켜보면, 나는 늘 돌이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노래든 영화든 한번 푹 빠지면 무한 반복을 즐긴다는 작가 홍승혜 Hong Seung-hye는 스스로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평했다. 그런 그녀가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여섯 번째 개인전 <회상回想>을 연다. 1997년 ‘유기적 기하학 Organic Geometry’에서 시작해 조각 및 평면,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 특성에 따라 현재까지의 행적을 되돌아보는 일종의 회고전이다. ‘회상’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작품은 모두 흑백 영화를 연상케 하는 무채색이다. 홍승혜 작가는 포토샵을 이용해 작업을 한다. 프로그램 기본 단위인 픽셀의 결합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한다. 화가였던 그녀는 처음부터 컴퓨터 작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그림판을 이리저리 갖고 놀다 직관적이면서도 무궁한 컴퓨터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작가는 사각의 그리드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열, 조합, 반복, 분해해 새로운 이미지로 증식시키며,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언뜻 정적으로 보이는 작품은 작가의 손을 통해 살아 있는 물질이 되어 탄생한다. 아무것도 없던 하얀 컴퓨터 화면에서 픽셀이 생겨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창틀이나 탑, 계단, 집으로 증식하고 진화한다.

작품이 하나의 픽셀에서부터 진화하듯 이번 전시도 작가가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시도의 진화다.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Over the Layers), 분절과 화합을 거듭하고(Debris), 그리드의 안팎을 넘나들고(On&Off),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Musical Offering),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온(All about Frames) 과거의 작업은 형태와 소재의 변형을 거쳤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이자, 앞으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변화할 것에 대한 이야기다.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2014, Inkjet Print, 40x40cm, Black

EDITOR CHOI YUNJUNG

COOPERATION KUKJE GALLERY(82-2-735-8449)

Artist Hong Seung-hye has opened her sixth exhibition. In contrast to previous exhibits which focuses more on the method of creation, this exhibit reminisces about days past through works comprising everything.